

高麗時代 農民運動의 性格과 農民意識變化*

李廣遠

責任研究員, 資源經濟研究室

- I. 序論
- II. 高麗朝 農民의 社會經濟的 特性
- III. 農民運動의 刺戟要因
- IV. 農民運動의 樣相과 價值觀의 變遷
- V. 農民意識의 變化
- VI. 結論

I. 序論

우리 역사상 農民抵抗運動은 모두 亂으로 규정되고 있다. 王朝史觀에 입각한 歷史記述 방법이었기 때문에 儒教의 또는 忠孝 中心의 王朝史觀에서 볼 때는 支配階級의 이익에 반하는 抵抗은 亂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民衆 中心으로 역사를 보려는 차원에서는 歷史發展과 관계없이 亂으로 규정해도 되느냐가 문제이다. 世界史와 마찬가지로 民衆史의 궁극적 목표가 모든 민중이 自由, 平等, 正義로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農民의 亂은 民族史에서 民衆의 自由, 平等, 正義의 의지를 축진하려는 하나의 農民運動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農耕文化에 기초를 둔 우리 나라 中世社會는

*本論文은 高麗大學校 刊行「高大文化」, 第20輯, 拙稿, 「歷史上의 農民運動」1981 중 高麗時代部門을 발췌하여 補完再整理한 것이다.

서양과 같은 완전한 封建社會는 아니지만, 封建體制를 바탕으로 발전하였으며 農業은 국가의 社會經濟的 기반이 되었다. 支配階級은 土地를 農民에게 나누어 주어 農民의 生產手段이 되게 함과 동시에 收租權을 행사하였고, 農民은 분배 받은 土地에 상응한 地代를 제공하는 일정한 社會倫理觀이 있었다. 즉, 支配階級과 農民 사이에는相互依存的 관계하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다른 한쪽이 침해를 받는 경우나, 어느 한쪽이 피해를 강요받을 경우, 즉相互依存的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본래의 秩序體系로 되돌아 가려는 움직임이나, 때로는 새로운 秩序體系로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또는 어느 계층이 요구하는 價值體系에 다른 계층이 이에 따르지 못할 때 생기는 갭이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다. 이것이 흔히 農耕社會에서는 農民抵抗運動이나 農民革命으로 나타난다.

人類 歷史 가운데 農民抵抗은 어느 시대나 흔히 볼 수 있다. 農民抵抗運動은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自然環境的 요인과 인위적 요인에 의해 촉발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被支配階級으로서의 支配階級에 대한 抵抗形態로 나타난

다. 그러나 抵抗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抵抗은 條件反射的인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 시대의 民衆이 처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한 未來指向的인抵抗도 있을 것이다.

本稿는 農民運動이 당시의 農民들이 처한 위기를 벗어나려는 未來指向的인抵抗을 중심으로, 社會 諸構成員間의 상호 유대에 의한 自然的, 人爲的 環境의 개선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고, 과연 우리 나라 農民들이 주어진 自然的人爲的 環境 개선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環境改善의 움직임으로 옮기기 이전에 農民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려 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農民들의 民衆意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위하여 ①農民運動의 刺戟要因 ②農民運動의 양상 ③農民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 또는 價值觀의 变천 등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歷史上에 나타난 農民運動의 대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文化的 歷史變遷에 따른 農民意識의 변화와 그 차이를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앞으로 우리 農民運動의 미래를 見知한다는 의미에서 歷史上의 우리 農民運動을 대상으로 시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本稿는 그 첫번째로 高麗朝 農民運動을 대상으로 農民運動의 양상과 성격 및 그에 따른 農民意識의 變化相을 규명해 보았다.

II. 高麗朝 農民의 社會經濟的 特性

歷史上 오랜 세월이 지난 옛날 王朝時代의 農民의 성격을 파악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人間이나 그의 集團은 그를 둘러싸고 있

는 環境의 영향을 받게 되고 經濟社會의 여건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는 면에서, 당시의 環境과 經濟社會의 여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그構成員인 農民의 性格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자하는 바와 같이 高麗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기반은 土地의 所有와 收取關係를 규정한 田柴科制度下에 있었다.

高麗初期에 제정된 田柴科制度는 주로 官人身分을 누리는 文武百官에 대해서 土地와 柴地를 분배해 준 官人 중심의 分地制度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 官人과는 별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일부의 農民도 土地分給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그것은 職役을 부담하는 특수한 계층인 丁戶에 국한되어 있었다. 職役을 부담하지 않는 白丁農民도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分地制度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¹ 그러나 白丁은 조상 대대로 傳來하는 그들 자신의 耕作地(民田)를 소유하고 있었다. 職役을 부담한 丁戶의 田丁은 명목상 어느 특정한 개인에 귀속되어 있는 개인 재산 같이 되어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均分相續되는 것이 아니라 婦長者에게만 單獨相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² 民田의 상속은 高麗 초기부터 分割相續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래서 土地支配關係는 다분히 共同體的 紐帶에 얹혀 있었다.³

官人層은 그들의 官等에 따라 응분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들이 지급받은 土地에 대한支配關係는 일단 田主 대 佃戶의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官人은 地主로서 그土地를 직접支配・管理・經營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權力에 의존하는 官人으로서 官收官給하는 土地의 田租를 일정한 기간 동안 취득할 뿐이었다. 土地를 지급받은 官吏가 사망하면 國家에 반납하는, 다시 말하면 세습적 상속은 허

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田柴科體制下의 官人은 國家로부터 지급받은 土地와는 이렇다 할 진밀한 직접적 유대가 없었으며, 그 土地의 耕作者인 農民인 佃戶와의 사이에도 상호간에 私의 인 支配·隸屬의 관계는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官인이 국가로부터 一定額의 토지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그 土地에서 나오는 田租의 取得을 의미할 뿐이다. 이와 같이 高麗 前期의 官人은 그의 地主의 성격이 부인되었거나 지극히 희박한 존재였다.⁴

王室·宮院의 土地支配 또한 國家權力에 의존하고 있었다. 高麗 前期의 王室·宮院의 私有地를 경영하는 방식 중에는 奴隸를 使役하여 경작하거나 小作制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經營方式은 國家權力を 통하여 부근 農民의 力役을 동원하고 그 수확을 全收하는 방식을 취하였다.⁵ 收租地에서는 吏를 통하여 租를收取하였다. 이것은 國家權力에 의존하는 경영방식이며 地主制의 경영방식과는 다르다. 이러한 土地經營方式은 中世 유럽의 賦役勞動이 土地의 給付에 대한 反對給付였으나, 高麗의 경우에는 土地의 給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무상의 勞動力徵發이었다.

寺院田의 경우에도 土地는 단순한 收租地와 私有地가 있었는데 寺院의 私有地에서는 寺奴에 의한 경영도 예상되지만 地主 대 佃戶와의 관계, 즉 小作制가 경영의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小作制는 방대한 寺院田과 기타의 土地를 고려하여 당시에 있어서 土地經營의 우월한 비중이 될 수는 없었다.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田柴科에 비하면 그 비중이 훨씬 약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田柴科의 지급은 土地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土地에서 나오는 田租의 취득을 의미하였을 뿐이며, 또 田主의 地主의 성격이 부인된 것이었다. 官인이 地主의 성격을 띠는 것은 高麗 後期의 일이다. 이것은 農民層에 있어서의 共同體의 紐帶의 解體作用과 未分化 상태에 있던 農民의 階級의 分化의 전진과 대체로 시기률 같이다.

國家가 農民으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收取의 내용은 租稅, 貢賦, 力役으로 대별된다. 高麗時代에는 매년 戶籍을 작성하여 戶部에 바치고, 戶部에서는 이 戶籍에 입각하여 전국적인 收取를 강행하였다. 高麗의 戶制는 土地·財產에 기준을 두어 等級을 정한 것이 아니라 勞動力이 많고 적음에 따라 작성하였다.⁷ 租稅는 土地의 結數에 따라서 징수하였으므로 人丁의 多寡에 따라 정해졌다는 것은 租稅를 제외한 賦役이라는 개념으로 중요한 내용은 貢賦와 力役으로 보인다.

貢賦는 農民 각자가 지는 개별적인 부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地方의 土產物을 매년 일정한 액수로 책정하여 郡縣 단위로 地方郡縣에 부과된 收取 항목이다. 收取된 貢物은 王室·宮院·政府 각 기관에 분납되었다. 貢賦는 平布로서 折價代納될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農民의 貢役에 의하여 現物로서 조달·상납되었다. 당시의 전체적 상황으로 보아 貢賦의 布納化的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그래서 地方官은 責任額數의 貢賦를 납입하기 위하여 일정한 土產物을 收集 製造하고 그것을 운송하는 貢役을 농민에게 부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貢賦는 王室, 宮院, 政府의 각 기관에 납품될 때는 現物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納品되기 까지의 과정에는 農民의 力役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극히 많았다.⁸ 金, 銀, 銅, 鐵을 비롯하여 陶磁

器, 紙, 墨 등의 특수한 手工品을 만들어 내는 所가 국가에 바치는 물건도 貢賦의 일종이었다.

高麗時代에는 良民이 거주하는 촌락과 賤民들이 거주하는 촌락이 구별되어 있었다. 郡縣制의 특수한 형태인 鄉, 所, 部曲 등을 구성하는 촌락은 賤民들이 集住하는 곳이었으며 그 수효도 평장히 방대한 것이었다. 高麗의 郡縣制는 그 실태와 구체적인 구조가 잘 밝혀져 있지 않으나 단순한 지역적 현성이 아니라 住民들의 身分差를 중요시한 身分的, 累層的인 현성의 색채가 농후하였다. 제반 收取, 특히 力役徵發의 地域的, 身分制의 특이성에 입각한 조직일 것이라는 說도 있다.⁹ 郡縣編成의 복잡한 조직과 이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力役의 특수한 부담은 불가분의 밀착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租稅, 貢賦, 力役의 비중을 비교하면, 비교적 부담이 가벼운 것은 租稅였고 貢賦와 力役은 이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편이었다. 李朝 肅宗 때의 일이지만 租稅와 貢賦의 비율은 1:3의 비례로 나타나 있다. 곧 高麗時代의 收取樣式은 土地에 중점을 두고 전개된 것이 아니라 人間의 勞動力 자체로서 직접 人身的으로 파악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租稅와 같이 土地를 대상으로 한 收取體系가 있었으나 압도적으로 큰 것은 人間의 勞動力 징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이 高麗 田柴科體制下의 農民은 그들이 소유하는 土地를 매개로 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勞動力의 소유자로서 직접 가혹한 人身的 收取를 당하였다. 封建社會가 지향하는 土地를 매개로 經濟社會의 農民의 위치를 속박하는 완고한 支配形態가 아니었다. 따라서 國家의 支配權이 미치는 土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즉 生業의 기반이 되는 土地를 매개로 한 國家支配

權이 農民과는 별개의 것이었기 때문에 身分의 으로는 자유로운 農民이었다. 그리고 일반 官僚와의 관계에서도 土地의 收租가 國家權力에 의존되어 있어서 農民과는 비교적 무관한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收取體系가 人丁에 기준을 삼았고, 收取額의 대부분이 土地의 田租보다 勞動力을 중심으로 한 貢賦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社會經濟의 위치는 奴隸의인 성격의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土地를 급여해 준 대신 勞動力을 이용하는 反對給付의 勞動力利用이 아니었다. 生業기반은 그대로 놓아둔 채 자유롭게 農耕에 종사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勞動力を 收取하는, 奴隸와 같이 부릴 수 있는 성격의 農民인 셈이다. 이는 封建의 佃田化한, 土地에 身分뿐 아니라 社會經濟의 위치까지도 예속되는 封建社會 農民과는 다르다. 그래서 高麗의 身分體系가 勞動力 供給 조건에 따라서 地域의 으로 다른, 居住地別 身分構成을 가지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工產品과 같은 것을 만드는 地域住民을 賤民으로 생각하였고, 직접 農耕에 종사하는 農民은 소위 良民이라 하여 자유스러운 身分에 속하지만 사실은 奴隸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엄밀하게 農民은 자신의 土地를 가지고 있는 한 支配層에게 力役 이외에 인신적 구속을 받지 않았다. 農民은 田租와 貢賦 등 力役을 제공하는 대신 支配層은 農民에게 자유롭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相互依存의 관계하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이 支配層과 被支配層(農民)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社會的倫理觀으로서 支配層과 農民과의 垂直的關係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III. 農民運動의 刺戟要因

1. 社會經濟的 背景

田柴科制度에 의하면 전국의 土地는 公田과 私田으로 구분되었다. 公田은 주로 國用, 祿俸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民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公麻田·屯田·內莊田 등도 이에 포함되었다. 私田은 주로 宮院·寺院의 私有地와 兩班 職役者에 지급된 分給收租地로서 형성되었다. 국가 재정은 원칙적으로 國民으로부터 징수된 租稅, 貢賦, 力役 등 租賦에 의해 충당되었다. 그런데 財政運用의 방식은 전국에서 收取되는 田租를 세입으로 잡고 財政用途別로 각 기관에 분할하여 지출하는 것이 아니었다. 田租가 나오는 土地를 國家財政의 각 항목에 맞추어 구분하고 財源을 미리 분배 고정시켜 놓았다.

田柴科體系 자체에도 모순점이 없지 않았다.
兩班官僚에 지급할 分給收租地가 부족하였다.¹⁰
또 分給收租地는 이념적으로는 國有制를 표방하
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功蔭田柴나 賜田같이
실질적으로 私有地나 다름없는 土地가 용인되고
있었다. 특히 賜田은 후에 賜牌田으로 濫給되어
大土地兼併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모순은 국가 지배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동안은 전체적인 질서의 안정 속에 억제되어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門閥과 族黨을 배경으로 한 貴族政治는 서로간의 암투와 음모가 따르게 마련이다. 國王을 중심으로 균형을 유지해 오던 支配秩序는 상대적인 질서의 안정 속에 잠재해 있던 여러 모순과 병폐가 표면에 나타나기 쉽다. 仁宗 3~4년에 걸쳐 일어나는 李資謙의 鬪亂은 國王을 점점으로 貴族들과 평현계를 유

지해 오면 高麗 政治體制의 붕괴를 의미한다. 上部構造의 혼란에 편승하여 지금까지 억제되어 오던 下部構造의 모순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上부構造에 반영되어 고려의支配秩序는 극히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을 배경으로 사회 전면에 나타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權勢家들의 土地奪占으로 인한 田柴科體制의 붕괴 현상이었다. 특히, 고려의 政治體制가 門閥과 族黨을 배경으로 한 賴族政治였기 때문에 支配階級의 몰락과 출현에 따른 귀족들 간의 土地爭奪戰은 高麗中期 이후 극히 심하였다. 權門勢家들은 私田擴張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高利貸業으로 백성을 수탈하고 丁田을 빼앗는 사례가 허다하였다.¹¹

奪占의 대상이 되는 土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劣弱한 農民들의 民田이었다. 高麗後期 史料에 흔히 보이는 「奪人土田 藏獲」, 「奪人田民」, 「奪人口 土田」이라고 표현된 田, 土田이 대개의 경우 무력한 農民들의 土地였다. 土田이 民, 人口, 藏獲과 並記되어 奪占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土地뿐 아니라 奴婢의 奪占도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 土地와 더불어 奴婢를 奪占당한 사람들 중에는 兩班들도 꽤 있었다.¹³ 農民의 民田에서 출발한 土地의 奪占은 그 후 軍人田, 兩班田에 파급되어 심지어는 宗廟, 學校, 倉庫, 陵寢, 宮庫, 州鎮, 津驛, 屯田 등 王室 國家機關의 소유지까지 權勢家들에 침탈되었다.¹⁴ 이러한 權門勢家들의 무분별한 土地의 奪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하였다. 明宗末期(1196)에 이르러서는 「彌州跨郡」하는 광범한 지역이 한 사람의 權勢家의 農場에 흡수되는 大土地兼併 현상이 나타났다.¹⁵

土地의 奪占은 經濟力이 약한 農民에게 高利貸業으로 土地를 没收한 경우도 있겠지만 田租

의 收取를 기화로 奪占¹⁶한 경우가 많았다. 田土를 빼앗긴 農民들은 生計를 얻기 위해 公私奴婢로 전락하였고 새로운 땅을 開墾하기 위하여 변경으로 이주하거나 유랑하는 사례¹⁷가 많았다. 土地를 잃은 農民들은 權勢家의 땅을 빌려 경작하는 佃戶로 변하여 무거운 小作料를 지불하고 나면 生計마저 위협받는 경우가 흔하였다. 이외에 國家에 바치는 田租까지 겹쳐, 같은 土地上에 대한 收租權의 행사가 二重三重으로 이루어지는 일¹⁸이 흔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유랑하고 없는 사람의 租稅마저 남은 農家에게 부담시키는 農民에 대한 수탈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¹⁹

權勢家의 大土地兼併과 奪占은 民田의 수탈을 의미하며 農民들의 經濟社會的 기반의 붕괴를 의미한다. 또 權勢家의 佃戶로 화했다든가 公私奴婢로 전락했다는 것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高麗農民의 身分의 地位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다. 人身의 收取 뿐 아니라 土地를 매개로 한 收取를 당하였다는 것은 土地와 人丁을 중심으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支配層과 被支配層의 相互依存의 관계의 해체를 뜻하며, 未分化된 原始社會에서 封建社會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는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지켜 온 社會倫理觀의 파기라는 점에서 階層간의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田柴科體制의 해체와 붕괴의 소자는 이미 武臣執權 당시부터 조성되고 있었다. 田柴科體制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府兵制도 무너져 權臣의 私兵이 武力裝備로서 대신 출현하였고 分給收租地 대신 農莊이 출현하여 力擴張의 기반이 되었다.²⁰ 武臣亂 이후 王室, 貴族, 寺院 등의 재산을 몰수 분배함으로써 막대한 農莊의 소유는 武臣들이 차지하였다.²¹ 鄭仲夫에서 慶大升, 李義政을 거쳐 崔忠獻에 이르는 武臣政權이 바뀔 때

마다 土地의 所有權이 바뀌었으며 막대한 農莊이 私占化되었다. 上部構造의 모순에 편승하여 下部構造의 諸州郡縣의 관리와 수령들도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고 公私의役을 함부로 일으키므로 이에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각 곳으로 흘어져 農業은 심히 피폐되었다.²² 農莊의 확대가 전국적인 규모로 팽창한 것은 蒙古服屬期 이후의 일로 보이지만 이 결과 대부분의 農민들은 權勢家들의 農莊 안에 흡수되어 佃戶로 화하였다.

이러한 支配階級의 계속적인 수탈로 農民生活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²³ 農民들의 支配階級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明宗 11년 7월 己卯條의 기록에 보면 심지어 壽昌宮 북쪽 담장으로부터 돌을 던져 임금의 寢殿에 이른 돌이 34개나 되었다고 하니 당시 支配階級과의 관계는 극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農民들의 支配階級에 대한 감정은 무엇보다 도탄에 빠진 百姓들을 의연한 채 肥己潤家하는 倫理的道德상의 타락에 있었던 것 같다. 高麗末 크게 유행하였던 景幾體別曲의 내용들이 豪華와 사치를 조장하여 열락과 퇴폐를 일삼는 무리를 비방하는 嘘世主義 文學²⁴의 근본이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생의 無常을 외치는 불교의 영향과 함께 瞬間的享樂을 추구하고 男女情事에 뛰어 들어가는 男女相悅之詞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支配階級의 倫理道德의 타락은 農民層의 고난을 바탕으로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農民들의 심한 반발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佃田化 이전의 상황을 동경하면서 支配層과의 倫理的 일체감을 거부하여 전술한 支配層과 被支配層과의 관계를 규정한 社會的倫理觀이 파괴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政治社會的 背景

高麗 仁宗 3~4년에 걸쳐 일어나는 李資謙의 亂은 國王을 정점으로 貴族들과 平行關係를 유지해 오던 政治體制의 붕괴를 의미하며 수직사회의 규범을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 되었다. 李資謙, 妙清 등 새로운支配階級이 몰락하고 등장하는 과정에서 支配秩序의 문란이 시작되었다. 武臣亂 이후에는 武臣 상호간의 권력다툼으로 執權力은 심히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社會經濟的인 기강이 해이되면서 下層民에 대한 통제도 매우 약해졌다. 이는 더욱 1170년의 武臣亂 이후 鄭仲夫, 慶大升, 李義旼을 거쳐 崔忠獻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支配階級이 몰락하여 賤民 또는 奴婢로까지 전락하였다. 明宗 3년 9월에는 모든 文臣들을 誅殺하였으며, 家屬들을 멀리 流配 또는 賤民, 奴婢로 귀속케 하였다. 明宗10년에는 三京 四都護 八牧에서 郡縣館驛의 所任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리를 武人으로 대체함으로써 많은 支配階級이 農民이나 賤民, 奴婢 등의 身分으로 하락하였고 또한 農民과 賤民 출신들이 支配階級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高麗社官에서는 원래 良人이나 農民들이 官職을 얻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武臣亂 직전에 毅宗이 奴婢 중에서도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는 官職을 주겠다는 구체적인 사례가²⁵ 있지만 參上官(6品官) 이상²⁶은 거의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武臣들이 政權을 잡게 되고 貴族社會體制가 무너지면서 下克上의 풍조가 널리 퍼지게 되어 奴婢들 가운데에서도 官職을 얻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明宗 12년 ~ 26년間 14년 동안 高麗의 政治를 좌우했던 李義旼 같은 사람은 자신이 奴婢는 아니었지만 소금 행상을 하는 農民出身의 아버지와 寺婢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賤民 출신 이었다.²⁷ 또한 明宗18년 당시 王運志라는 고관의 비서역을 맡았던 平洋이라는 奴婢는 자신이 土地를 所有하고, 土地를 다른 權門에게 바쳐 賤人身分을 면하고 良人이 되었고 결국에는 상당히 높은 官職에 진출한 사례를 볼 수 있다.

高麗社會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奴婢의 放養은 철저히 통제하였다. 그런데 仁宗, 毅宗年間의 貴族들 간의 질투와 다툼이 국에 이르자 상호간의 軋轢이 치열하게 되고 國家權力이 약화되면서 통일적인 支配秩序의 이완을 가져와 奴婢階級의 地位와 身分에 동요를 일으켰다. 또, 貴族들의 횡포와 착취는 그의 실제적執行者인 奴婢의 經濟的, 社會的인 대두를 가져오게 했다. 奴婢들은 主人勢力의 옹호하에 자신의 세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으며 주인의 비호하에 그들의 행패가 대단하였다.²⁸ 이와 같이 奴婢들은 權力者에 기생하여 權力を 쌓고, 차츰 엄격했던 身分上의 卑賤한 위치를 이탈, 개별적인 대두와 진출을 보게 되었다. 이는 자기의 과거와 현재의 存在位置를 부정하는 뚜렷한 새로운認識의 표현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階級에 대한 意識을 굳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忠穆王 때 首相격인 右政丞을 지낸 蔡河中 또한 外祖母가 官婢인 賤人出身이며 일찌기 元에 仕官하여 五品職인 太傳府咨議參軍에 올라 나중에 元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政丞을 지내기도 하였다.²⁹ 忠宣王 때 임금의 옆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賛成事 康允忠도 賤隸 출신이었으며,³⁰ 康允忠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裴佺과 盧英瑞가 있다.³¹ 裴佺은 母가 宮婢였고 忠惠王의 婢幸으로 출세하여 封君되어 盧英瑞도 무식한 하충신분으로 忠穆王 즉위초에 公主를 통하여 권세를 누렸다. 이와 같이 家門과 身分이

좋지 않은 賤民出身들이 많이 진출함으로써 高麗初期에 가졌던 高麗社會의 전통적支配秩序가 붕괴되는 커다란 사회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몰락한支配階級은 農民社會에 서서히 흡입되어 被支配階級으로서 農民들과 동화되어 갔고 農民社會의 배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몰락支配階級의 執權에의 기대와 權力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때로는 農民들의 이해와 합치되어 일어나게 된 것이 趙位寵을 중심한 西賊의 亂³²이라고 할 수 있다.

豪強家의 農莊 안에는 일반百姓, 官奴 뿐만 아니라 州縣驛吏 등의 하급 관리들까지役을 逋脫하기 위하여 다투어 奴婢로 投托하였다.³³ 農莊의 확대와 병행하여 農莊耕作者의 확보를 위하여 良民의 강제적 奴婢化가 壓良爲賤, 抑良爲賤의 방법으로 성행하였는데³⁴ 良民이 자진하여 奴婢로 투신하는 경우도 많았다. 農莊의 佃戶가 되면 國家의 賦役을 도피함으로써 일반民戶에 비하여 보다 나은 생계가 약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農莊內部에 있어서의 이러한 良賤身分秩序의 혼란과 더 나아가 支配者와 被支配者間의 身分上의 혼란은 상기한 土地支配秩序의 변질과도 서로 관련하여 階層關係의 변동을 초래한 새로운 社會的인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다.³⁵

추측컨대 土地의 奪占과 農莊의 형성 확대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身分秩序의 혼란이 진전된 배후에는 당시 農民의 共同體의 紐帶關係로부터의 分解가 전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共同體의 紐帶關係가 그대로 존속되는 상황 하에서는 土地의 奪占도, 身分秩序의 혼란도 그리 쉽게 진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家父長的 秩序體系의 혼란과 같은 것으로 農村社會

및 家系構成(共同體村落)의 분해과정을 말하며, 農村社會 구성을 지배하는支配倫理의 파괴를 의미한다. 새로운 村落構成員으로서 移入農家와 그로부터 빚어지는支配秩序의 변동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본래의 村落社會가 가지고 있던 共同體의 紐帶關係를 붕괴시키게 되는 것이다. 共同體의 紐帶關係에 서의 분해는 저급한 社會生產力 段階에서의 탈출을 의미하지만, 政治社會의 으로는 일종의 過渡期의 社會混亂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高麗 農民運動의 배경에는 첫째, 政治社會 기강의 문란에서 야기된 土地制度(田柴科體系)의 문란으로支配階級의 收奪과 가혹한 요구에 農民이 응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相互紐帶關係의 파괴와, 둘째, 支配階級의 몰락과 새로운支配階級이 출현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身分體制의 붕괴를 들 수 있다.

이외에 農民運動을 촉발시키게 된 요인은 中央執權力의 악화를 들 수 있다. 李資謙, 妙清亂으로 中央執權의 支配秩序는 땅에 떨어졌고 武臣亂 이후에도 武臣相互間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력이 심히 악화되었다. 武臣들의 中央執權力만 강화되었더라도 農民運動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高麗 農民運動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明宗 4~9년까지의 西賊의 亂이라는 關西地方의 農民反抗運動과 全羅, 忠清, 慶尙地方을 중심으로 한 南賊의 亂에 이르기까지 農民運動 전후의 자연적 環境은, 한발과 홍수로 餓死者가 줄을 이었고 疾病이 만연하였다. 桀宗 9년의 大旱魃과 桀宗 25년 6, 8월의 大洪水, 明宗때는 어느 한해 한발과 홍수가 그치지 않았으며, 疾病이 만연하여 西北과 三南 각곳에 시체가 줄을 잇는 대혼란이 계속되었다.

IV. 農民運動의 樣相과 價值觀의 變遷

高麗 農民反抗의 시초는 西北人을 중심으로 한 西北方 40여 개 성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中心人物格인 趙位寵은 武臣執權의 타도와 관리 등용에 있어 西北人의 차별대우를 내세우고 있다. 趙位寵은 西北 출신의 몰락한支配階級으로 그 자신 農村에 머물면서 퇴락한 農民社會의 고통과 支配階級의 수탈을 잘 알고 있었다.³⁶ 몰락한 支配層과 農民의 입장에서는 武人們의 수탈은 일종의 배반이라고 볼 수 있다. 武臣政權을 수립한 지도자들은 武官이었으나 政變에 필요한 武力を 공급한 것은 貢役의 담당자이며 收奪의 대상인 農民出身의 府兵들이었다. 武臣亂이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下級兵士인 이들 府兵이 호응 가세하였기 때문이다. 武臣亂의 배후에는 광범한 민중들의 文臣貴族에 대한 반항이 잠재하고 있었다. 이들 민중의 반항은 그들 階級同伴者인 府兵의 봉기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武臣政權의 출현은 단순한 支配層 내부의 정변이 아니라, 누적된 農村社會의 모순이 새로운 支配秩序의 등장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민중의 抗拒이기도 하다.³⁷ 武臣 賤待風潮가 짙었던 당시에는 農民과 賤民, 奴婢出身들이 武人으로 진출한 예가 많았고 民亂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戰功을 세우고 武官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武臣亂을 文臣, 權貴들의 農民 착취와 수탈에 대한 農民出身의 반발이라고 보는 學者도³⁸ 있다.

그런데도 武臣亂 이후 明宗 神宗(1169~1200)兩代 30년 간에 걸쳐 대규모의 農民反抗運動이 武臣政權을 상대로 전국을 휩쓸었다. 武臣亂이란 農民들의 새로운 지배질서에 대한 염원이 武

臣政權에 대한 기대로 옮겨가서 나타나게 된 결과로서 農民들이 武臣亂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武臣亂의 구호의 하나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회생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보면 農民들의 성원이 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政權을 잡은 武人們은 文臣보다도 더 가혹한 收奪³⁹을 일삼았으니 이는 農民들의 기대와 성원에 대한 일종의 배반이었을 것이다. 이미 사회적으로도 執權者 가운데 農民出身이나 賤民出身들이 많이 진출하여 있었기 때문에 支配官吏들과 비슷한 身分出身이라는 平等意識이 팽배해 있었을 것으로 볼 때는 대단한 배반이었을 것이다. 趙位寵이 명분상 武臣政權 타도를 부르짖은 것은 당시 農民層의 불만을 집약할 수 있었고 西北人의 차별이라는 地域感情을 도입하여 물리적 힘으로 응집시키려는 시도인 것 같다. 西北 40여 개 성이 5년여에 걸쳐 저항한 것을 보면 武臣政權 타도라는 農民과 몰락 支配階級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武臣들은 農民反抗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政治의 기반을 닦았고 私利私慾을 위해 이용하였다. 이에 실망한 農民들의 기대는 다시 다른 武臣政權으로 넘어가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거듭하게 되었고 賤人出身의 李義旼政權을 낳기에 이른다.

明宗 5~12년 간의 南賊의 亂이라는 三南地方 農民들의 反抗은 가혹한 租稅와 賦役, 土地의 占奪에 반발한 農民들이, 곳곳에서 官衙를 습격하고 官員을 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支配階級의 수탈에 대한 반항에서 시작한 農民運動은 社會制度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고 마침내 身分解放運動으로 이어지게 된다. 三南地方의 農民反抗은 身分意識에서 싹튼 支配階級에 대한 반항과 社會制度의 개선을 요구하는 점에서 西北地方의 움직임과 다른 발전된 형태를 보인다.

1176년 公州 鳴鶴所를 중심으로 일어난 亡伊, 亡所伊의 항거와 1198년의 萬積의 亂은 身分解放을 목표로 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所는 特殊物品을 제조하는 工人의 집단 거주 지역을 말하는데 地方行政 單位이면서 그 자체가 賤民들의 집단이었다. 鳴鶴所의 所民들은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山行兵馬使를 자칭하며 清州, 牙山 등지까지 점령했다. 당시 執權武臣들은 武力으로 제지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패하고 말았다. 상당한 숫자의 府兵뿐만 아니라 私兵까지 가지고 있던 武臣集團이 일개 자그만 工人集團의 亂을 진정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府兵 뿐이 아닌 忠清 일대의 農民들의 지원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 있다. 이에 희유책으로 鳴鶴所를 良民들의 일반 행정 단위인 縣으로 승격시켜 준다고 하여 무마했고 실제로 忠順縣으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武人 執權者들은 기만책을 써서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일단 항거가 가라 앉자 주모자인 亡伊, 亡所伊의 가족들을 연금하는 보복조치⁴⁰를 취하였다. 다시 항거가 시작되어 中央政府와 전쟁을 벌이지만 1년 정도 지속하다 토벌되고 말았다. 鳴鶴所의 亂은 賤民의 항거로 시작되었지만 忠清道 일대가 적극 협세한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적인 身分解放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身分解放運動은 뒤이어 1198년 萬積의 亂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무엇보다 萬積의 항거는 農民抵抗이 일단 안정된 崔忠獻이 등장한 후 首都 開京에서 일어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開京의 私奴 萬積과 그를 따르는 5명의 奴婢들이 開城 北山에 나무하러 갔다가 萬積이 「우리가 奴婢로 뼈를 깎는 수고를 할 이유가 무엇인가? 宰相들이 따로 있느냐?」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奴婢들이 자기 주인을 죽이면 자유로운 身分이

될 수 있고 나아가 政權까지 잡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官奴들은 廳內에서 權臣들을 죽이고 私奴들은 城內에서 결기하여 崔忠獻 등 자기 주인을 죽여서 奴婢의 文籍을 불사르고 政權을 장악하기로 計劃했다. 거사 당일 모인 奴婢들의 숫자가 처음 예상했던 수천 명보다 적은 수백 명 밖에 모이지 않자 거사일을 바꾸었던 것인데, 奴婢 중 하나가 밀고하여 萬積을 비롯한 100여 명은 投江하고 그밖의 연루자가 너무 많아 불문에 부쳤다고 기록⁴¹하고 있다. 당시 身分으로는 계일 하층인 奴婢의 입장에서 將相됨에 어찌 출생에 문제가 될 수 있으랴, 떼가 오면 우리들도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솔로전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奴婢들이 각각 자기 주인을 죽이고 賤籍을 태워버려서 三韓을 賤人없는 나라로 만들자고 하는 데 있다. 이는 당시의 엄격한 身分制社會에서 이완되어 身分意識에서 탈피하려는 의식이 이미 社會全般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萬人平等理論을 내세워 平等社會를 만들자는 주장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선구적인 것이며 자기 자신만이 奴婢의 신분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奴婢制度 그 자체를 없애겠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高麗後期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權勢家들의 土地奪占으로 農民들이 農地를 잃고 佃戶化한 데서 빚어진 經濟社會的 파탄이었다. 그런데도 高麗朝 農民反抗은 빼앗긴 農地의 再分配에 두지 않고 身分制의 타파에 계속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抗拒의 초기 단계에는 權貴들의 收奪의 잔학성을 폭로하고 각종 制度의 不條理를 들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끝에 가서는 근본적인 身分制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다. 高麗社會의 문란은 완고한

身分制에 있다기 보다 껌질뿐인 身分制에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身分制의 문란이 支配秩序와 土地制度의 문란을 가져왔고, 이것의 타파야말로 근본적인 社會秩序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물론 처음에는 身分的 苦痛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국에는 根本原因에 대한 改革의 방향으로 나섰다. 武臣政權下의 抵抗運動 가운데는 官僚의 저항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舊體制, 文臣政權體制의 복귀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農民運動은 舊秩序의 타파를 요구하고 있는 점이다. 즉, 高麗社會의 뿌리깊은 古代性을 극복하기 위한 社會運動이었다.

農民抵抗運動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國土가 몽고에 짓밟히면서 새로운抵抗形態로 발전하였다. 蒙古軍이 忠州城을 공격했을 때 兩班子弟로 편성된抵抗軍은 모두 도망쳤는데 農民들과 奴婢로 편성된抵抗軍은 끝까지 抗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金允候가 處仁城에서 몽고와 싸울 때, 奴婢文書를 모두 태워버리면서 身分差別 없이 蒙古와 싸우자고 고무함으로써 끝까지 城을 지키게 된다.⁴² 身分意識의 타파가 國家 구성원의 하나로서의 자각을 의미하고 있고 支配階級만이 아닌 外勢도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게 된다는데 대한 줄기찬 반항⁴³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족적인 입장에서 身分制로의 解放運動이 外敵에 대한抵抗運動으로 승화된 것이다. 蒙古支配下의 被支配層의 봉기도 사실 이 같은 社會意識과 身分意識의 성장이 國家意識 또는 民族意識과 결부되어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蒙古와의 관계에서 朱子學을 導入, 朱子學의 이념으로 무장한 士大夫 세력이, 성장하고 있는 農民意識을 기반으로 새로운 社會經濟體制와 질서의 확립을 바탕으로 새로운 社會를 이루한 것이 바로 朝鮮王朝라고 할 수 있다.

V. 農民意識의 變化

高麗朝 農民의 성격을 규정한 田柴科 體制下의 農民意識과 田柴科體制 붕괴 이후의 農民意識은 크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특히 高麗 農民社會가 武臣亂 이후 사회적인 큰 변화를 체험하는 동안 農民들의 社會意識과 平等的 身分意識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高麗史 明宗 11년 正月 辛酉條에 보면 農民出身이 대부분인 軍校와 君臣이 모두 한데 어울려 尊卑가 等級이 없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尊卑가 함께 한다는 것 조차 용인할 수 없는 완고한 封建社會에서 尊卑가 한데 어울린다는 것은 이미 支配階級 内部에서부터 身分制의 붕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 백성의 편에서는 執權者도 자신과 같은 身分出身이라는 社會觀念이 썩혔을 것은 당연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權力者에게 기생하여 權力を 쌓고 身分上의 卑賤한 위치를 이탈하여 經濟的, 社會的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奴婢階級은 武臣亂을 계기로 社會的 階級의 意識을 급격히 발전시켰다.⁴⁴ 그리고 사실상 兩班이란 文武를 가르키는 것이나 政治的 權力이나 社會的 地位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며 武臣들 중에 賤出이 많았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拓俊京⁴⁵도 無賴漢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이점 鄭仲夫도 마찬가지였다. 이상과 같이 身分階級上의 혼란과 변질과정이 農民들에게 覺醒을 촉구, 階級意識을 발달시켰던 것이다. 武臣亂 이후 國家統一權力과 統制力의 약화로 奴婢들의 대두가 현저해짐에 따라 階級의인 認識을 가지게 되고 社會的 모순을 발견함으로써 階級意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社會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실의 불만에 대한 反抗意

識으로 변화하였다.⁴⁶

전술한 바와 같이 田柴科體制下의 農民은 共同體의 紐帶關係를 가진 未分化된 自營農民이었다. 자신이 경작하는 土地에서 國家의 田租를 납부하고 나면 力役 이외에도 支配權力과 별 무관한 자유로운 農民이었다. 또한 高麗社會를 지배한 佛教가 지녔던 總和敎理나 平等思想은 良賤을 초월하는 身分觀을 가지고 있어서⁴⁷ 高麗前期부터 평등한 身分意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農民은 社會經濟的으로 國家에 예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田柴科體佃 자체의 모순과 支配秩序의 문란으로 土地를 奪取당하고 난 農民은 佃戶化되었고 身分의으로도 奴隸化되어 良民으로서의 身分을 잃고 賤民화되는 과정을 밟았다. 따라서 經濟的, 社會的 기반을 모두 상실한 共同體의 紐帶關係가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村落秩序가 분해되고 經濟的, 社會的 모든 권한이 地主的性格을 띤 權勢家들에 집중됨으로써 封建的 社會經濟體制가 확립되고 封建的 身分制 속에 農民을 구속하는 社會의 過渡期에 들어선 셈이다. 이러한 社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價值觀의 혼란현상이다. 전통적인 社會意識이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게 되며 새로운 社會意識이 용인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다. 高麗社會도 權勢家들의 大土地兼併에 의한 封建的 土地管理方式이 移入되면서 管理手段으로서 農民의 地位를 佃戶化, 奴隸化했던 것인데 본래의 자유로운 農民意識에 의해 저항을 받게 된다. 田柴科體制를 기반으로 한 社會經濟體制의 모순과 封建的 身分體制가 農民의 身分地位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암적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田柴科體制下에서 다수를 차지했던 民田은 均分相續되어 家族을 土地를 중심으로 共同體의 紐

帶 속에 결속하게 하였다. 그러나 民田이 奪占됨으로써 土地를 중심으로 家系를 하나로 결속할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 즉, 傳統社會의 붕괴였다. 家族(村落)의 일부는 奴婢로 전락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새로운 新墾地를 찾아 流離할 수도 있어 共同體의 紐帶가 깨어지게 된 셈이다. 또는 賤人身分이지만 權勢에 아부하여 良人이 되고 權力의 地位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전통적 價值體系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실지로 많은 賤民과 農民들이 支配階級으로 진출함으로써 高麗社會가 가지고 있던 價值觀의 混亂狀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傳統的 高麗社會가 가졌던 價值體系의 붕괴를 가져온 새로운 價值體系에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武臣亂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에 실망한 農民들이 새로운 價值體系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 農民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價值에 대한 공동의 對抗, 그리고 共同體의 紐帶關係의 분해에서 共同體의 본래의 紐帶關係로 결속하려는 힘이 民衆意識으로 움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高麗의 農民運動은 田柴科體制下의 본래의 農民으로 되돌아 가려는 認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支配階級과의 마찰에서 새로운 社會意識이 성장하였고 새로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며, 더 나아가 農民運動의 막바지인 萬積의 亂에서는 평등한 社會建設이라는, 舊秩序의 타파를 요구하는 政治意識이 성장하게 된다. 蒙古支配下에서는 身分解放運動이 外敵에 대한 抵抗運動으로 승화되어 國家와 자신을 지키려는 民族意識으로 나타났다. 對蒙抗戰은 農民과 下層賤民層의 抗戰이라는 면에서 특기하다. 權臣, 官僚들은 外敵에 아부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탐하였지만 農民들은 스스로 壓迫을 해쳐나가면서 결국 歷史運行의 主體를 이루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VII. 結論

農民運動 연구의 大家인 울프(E. R. Wolf)는 農民蜂起의 原因을 크게 인위적인 原因과 자연적인 原因, 둘로 나누고 있다. 즉, 傳統的 社會에서는 自然條件이 雖然하면 農民들은 인위적인 環境(예, 制度)에서 오는 어려움을 관습적으로 그대로 참는데, 자연적 조건이 갑자기 악화되어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는 그 불만을 인위적 環境에 돌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高麗의 農民運動에서 보면 그 양상이 조금 다르다. 高麗의 農民運動은 土地制度와支配秩序의 문란으로 社會經濟의 혼란이 가중되고 身分體制의 붕괴로 인한 社會民衆意識이 싹트면서 지배계급의 收奪에 참고 견디어 오는 동안 累積된 凝集力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물론 自然環境要因도 작용했겠지만 평등적 身分意識 성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高麗農民蜂起의 원인은 인위적 환경의 어려움에서 야기되어 社會改革을 통한 環境改善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데 있다.

農村經濟, 나아가 국가, 사회파탄의 근본요인을 인식하게 되고, 자신들이 처한 現實問題를 자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農民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막는 저해요소에 대한 社會認識이 民衆意識으로 성장하면서, 누적되어 온 農民層의 구조적 커플렉스를 자각하게 된다. 즉, 轉換期의 상황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하고 치유하려는 問題提起했다. 高麗의 農民運動에서는 支配階級에 대한 저항에 그치지 않고 社會制度의 개선과 身分解放運動으로 발전하는 뿌리깊은 古代性을 극복하기 위한 社會運動이었다.

封建社會의 어느 民族이든 經濟社會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의 根本問題는 바로 農村, 農間問題였다. 高麗社會의 위기 또한 農村의 分解와 農民問題였다. 이것은 政治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오직 農民 스스로 밖에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農民의 社會意識水準도 높아지게 되었고 歷史의 主體意識을 가질 수도 있었다. 그 결과 高麗社會가 처한 전환기적 상황의 현실적 農民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그곳으로부터 탈각하려는 農民들의 몸부림을 볼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批判的認識이 社會的潮流에 逆流하면서, 意識化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轉換期의 農村 農民問題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運動의 결과 農民들의地位가 향상된 것은 아니었다. 人口增加 과정에서 歷史發展이 그랬듯이 비교적 자유로운 自給的 生產樣式에서 計劃的 生產樣式으로 넘어가는 封建的 生產農民으로서 農奴와 같은 위치로 전락되고 말았다. 어느 면에서 轉換期의 상황에서 성장한 農民의 意識水準이 당시 社會, 政治的으로 성장한 士大夫勢力의 政治的 意識과 합치되면서 計劃的大量生產體制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轉換期의 상황의 탈출방향으로서의 生產樣式의 변화를 선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당시 士大夫勢力의 뿌리 또한 農村 農民에 배경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앞서 農村, 農民에 대한 政策的 배려가 강구되었다. 收取體系를 포함한 田柴科制度를 科田法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生產樣式에 부합될 수 있는 施策을 강구하였다. 이 점 근간 우리 農村이 轉換期의 현실에 처해 있다고 보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크다고 하겠다.

註 例 參考文獻

- 註1. 旗田嶽, 高麗の民田について, 「朝鮮學報」, 48, 1968 참조.
2. 旗田嶽, 高麗時代における土地の嫡長子相續と奴婢の子女均分相續, 「東洋文化」, 22, 1957.
3. 高麗史, 卷78. 食貨志1. 辛禡14年 7月 「趙浚上疏」, 同上, 科田法關係條文.
4. 姜晉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 田柴科體制에 관련된 諸問題, 高大出版社, 1980, p. 429.
5. 姜晉哲, 「高麗前期의 公田, 私田과 그 差率收租에 대하여」, 「歷史學報」, 29, 1965.
6. 姜晉哲(1980), p. 431.
7. 高麗史, 卷84, 刑法志1. 戶婚條 「編戶以人丁多寡 分爲九等 定其賦役」.
8. 姜晉哲(1980), p. 277.
9. 高承濟, 「韓國村落社會史研究」, 一志社, 1977. pp. 197—201 참조.
10.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文宗23年條.
11. 宋炳基, 「高麗時代의 農場」, 「韓國史研究」, 1969, p. 7.
12. 有井智德, 「高麗朝における土地奪占について」, 「歷史教育」17-18, 1969참조.
13. 高麗史節要 卷21, 忠烈王21年11月條 「世子朝干王土 庶人遮道擁馬 上書訖寃 馬不得前 世子皆受之 蓋豪勢之家奪人田民 有司不能聽斷故也」.
14. 高麗史 卷132 辛毗傳 田民辨正都監榜諭, 上同書 卷126, 林堅味傳, 上同書 卷82 兵志2 屯田 恭愍王 5年 6月敎 参조.
15. 高麗史 卷129. 崔忠獻傳 明宗26年, 忠獻與忠粹上封事曰참조.
16. 宋炳基, 前揭書, p. 7.
17. 高麗史 世家 寅丙戌元年四月庚寅條.
18. 高麗史 食貨志 田制條 「辛禡十四年 趙浚上書 一畝之主過於五六 一年之租 收之八九…」.
19. 高麗史 食貨志 田制 辛禡14年條 参조.
20. 高承濟, 前揭書, p. 169.
21. 高麗史 明宗癸丑3年 9月癸卯條, 10年壬戌條 参조.
22. 高麗史 世家 明宗 16年閏 7月乙卯條 「制曰 比來守令 刻剥其民 無所畏民 人不堪苦 流離日多…」.
23. 高麗史 世家 明宗20年 9月丙辰條, 上同書 列傳 辛毗傳 田民辨正都監榜諭 参조.
24. 朴晟義, 「高麗歌謡研究(下)」, 「民族文化研究」, 第5號,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1. pp. 99—166.
25. 高麗史 卷85 刑法志 盜賊條 「内外強竊盜 知認捕捉者…… 賤人放良…」.
26. 高麗史 卷122. 宦者條 「高麗閹人 其本系 非珉則璫隸也…」.
- 但備宮門 永巷之任而已 不得拜參官 其慮深遠矣, 毅宗時 鄭誠 白善淵 始用事」.
27. 高麗史 列傳18. 李義改傳.
28. 郭址南, 萬積亂의 一考察, 「高麗」 4卷 1號 慶熙大學校, 1960. pp. 207—223.
29. 高麗史 列傳21, 蔡洪哲傳.
30. 高麗史 列傳37, 康允忠傳.
31. 高麗史 列傳37, 裴侄傳, 盧英瑞傳.
32. 有井智德, 「麗末における 村落의 反亂について」, 「歷史學報」 28, 1966 参조.
33. 高麗史 卷132. 辛毗傳 参조.
34. 高麗史 卷85 刑法志2 奴婢, 忠烈王24年 正月敎書 近來壓良爲賤者甚多 其令有司 劝其無文契及許僞者 罷之.
35. 姜晉哲, 前揭書(1980), p. 326 参조.
36. 有井智德, 前揭論文(1966) 参조.
37. 姜晉哲, 韓國土地制度史(上), 「韓國民族文化史大系上」,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70. p. 1337.
38. 有井智德, 前揭論文(1966) 参조.
39. 高麗史 卷128. 鄭仲夫傳, 李義改傳 参조, 「上同書 卷78. 食貨志 田制 明宗18年 3月下制…」.
40. 高麗史 卷19 明宗7年 3月條 「亡伊等 焚弘慶院 殺居僧十餘人 逼令住持僧 覺書赴京 略曰 既升我鄉爲縣 又置守以安撫 旋復發兵來討收斂我母妻 其意安在 寧死於鋒刀下 終不爲降虜 心至王京然後已…」.
41. 高麗史節要 卷14, 神宗元年 5月條 「私僱萬積等六人 燕北山 招集公私奴隸 謀曰 國家自庚癸以來 朱紫多起於賤隸 將相寧有種乎 時來則可爲也 吾輩安能勞筋肉 因於淮楚之下 諸奴皆然之 剪黃紙數千 皆級丁字爲識約曰 吾輩自興國寺前廊 至慈庭 一時群集鼓噪 則在內宦者 必應之 官奴等誅戮於內 吾徒蜂起城中 先殺崔忠獻等 仍各格殺其主 焚燒籍使三韓無賤人 則公卿將相 吾輩皆得爲之矣 乃期皆集 以衆不滿數百 恐不濟事 更約會普濟寺令曰 事不密則不成 憤勿泄 律學博士韓忠愈家奴顧貞 告變於忠愈 忠愈告忠獻 遂捕萬積等百餘人 投之江 援思愈閨門紙候 賜順貞白金八十兩 免爲養以餘黨不可悉誅 拓不問」.
42. 高麗史 列傳16. 金允侯傳, 「蒙古兵來圍州城 凡七十餘日 積儲幾盡 互候驗厲士卒曰 若能効力 無貴賤悉除官爵爾無不信 遂取官奴婢焚之 又分與所牛馬人 皆効死赴敵 蒙古兵稍挫遂不復南以功…」.
43. 邊太燮, 萬積亂發生의 社會의 素地, 一武臣亂에 있어서의 身分構成의 变遷을 기반으로—韓國史學會「史學研究」 4號 1959. pp. 1—41.
44. 郭址南, 前揭論文 参조.
45. 高麗史 卷127. 反逆1. 拓俊京傳.
46. 郭址南, 前揭論文 参조.
47. 高承濟, 前揭書 p. 200.